

## Market Index / 3일

코스피지수	▲ 5288.08 +338.41	코스닥지수	▲ 1144.33 +45.97	유가(WTI, 달러)	▼ 62.14 -3.07	환율(원)	1USD 100원	찰때 1470.99 946.40	찰때 1420.41 913.86	찰때 1EUR 1CNY	찰때 1741.57 218.89	찰때 1673.61 198.05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# 제주 소비자물가 상승률 2%대 유지

1월 제주 소비자물가 2.0% 상승… 오름폭은 둔화  
채소가격 내리고 수산물 강세… 고등어 29.6% ↑

제주지역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(2020년=100)으로 전년 동월 대비 전년 같은 달보다 2.0% 상승하며 5개월 연속 2%대 흐름을 이어갔다. 상승률은 전월보다 낮아 오름폭이 둔화되며 5개월 만에 최소폭을 기록했는데, 쌀·수산물 등 일부 먹거리 가격 강세가 이어지면서 체감부담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.

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가 3일 발표한 '2026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 동향'을 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.50

2.0% 상승했다.

소비자물가 상승률(전년동월비)은 지난해 9월 2.2%, 10월 2.4%, 11·12월 각 2.2%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월 2.0%로 2%대 흐름 속에서 지난해 8월(1.3%)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.

품목성질별로 전년 동월 대비 상품은 2.3%, 서비스는 1.8% 각각 상승했다.

특히 농축수산물이 5.1% 상승하며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. 세

부적으로 보면 채소(-2.5%)는 하락했지만 곡물(17.0%), 축산물(5.0%), 수산물(12.1%)의 상승 폭이 커졌다. 과실은 3.4% 올랐다.

쌀(18.5%), 고등어(29.6%), 명태(10.9%), 사과(5.8%), 달걀(5.7%), 국산쇠고기(5.4%) 등 품목에서 많이 올랐고, 당근(-48.0%), 무(-33.6%), 배(-31.0%), 배추(-23.7%) 등은 하락했지만 신선과류는 3.1% 올랐고, 신선어개류는 13.6% 상승했다.

신선어개 상승률은 3개월 연속 10

%대를 기록하고 있다.

공업제품은 전년 동월 대비 1.8% 상승한 가운데 가공식품 물가는 3.5% 올랐다. 빵이 4.8% 상승했고, 라면은 10.7% 뛰며 지난해 6월(10.5%) 이후 다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.

은 지난해 8월(1.5%) 이후 4개월 연속 3%대에서 지난달 2%대로 내려왔다.

이른바 '밥상 물가'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.7% 상승했다. 신선채소는 2.6% 하락했지만 신선과류는 3.1% 올랐고, 신선어개류는 13.6% 상승했다.

신선어개 상승률은 3개월 연속 10

%대를 기록하고 있다.

온·오프라인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상승하며 체감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. 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부터 3~4%대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. 다만 생활물가 상승률

은 지난해 8월(1.3%)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.

제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올랐다. 빵이 4.8% 상승했고, 라면은 10.7% 뛰며 지난해 6월(10.5%) 이후 다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.

온·오프라인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상승하며 체감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. 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부터 3~4%대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. 다만 생활물가 상승률

은 지난해 8월(1.3%)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.

제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올랐다. 빵이 4.8% 상승했고, 라면은 10.7% 뛰며 지난해 6월(10.5%) 이후 다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.

온·오프라인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상승하며 체감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. 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부터 3~4%대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. 다만 생활물가 상승률

은 지난해 8월(1.3%)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.

제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올랐다. 빵이 4.8% 상승했고, 라면은 10.7% 뛰며 지난해 6월(10.5%) 이후 다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.

온·오프라인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상승하며 체감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. 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부터 3~4%대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. 다만 생활물가 상승률

은 지난해 8월(1.3%)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.

제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올랐다. 빵이 4.8% 상승했고, 라면은 10.7% 뛰며 지난해 6월(10.5%) 이후 다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.

온·오프라인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상승하며 체감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. 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부터 3~4%대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. 다만 생활물가 상승률

은 지난해 8월(1.3%)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.

제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올랐다. 빵이 4.8% 상승했고, 라면은 10.7% 뛰며 지난해 6월(10.5%) 이후 다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.

온·오프라인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상승하며 체감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. 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부터 3~4%대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. 다만 생활물가 상승률

은 지난해 8월(1.3%)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.

제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올랐다. 빵이 4.8% 상승했고, 라면은 10.7% 뛰며 지난해 6월(10.5%) 이후 다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.

온·오프라인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상승하며 체감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. 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부터 3~4%대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. 다만 생활물가 상승률

은 지난해 8월(1.3%)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.

제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올랐다. 빵이 4.8% 상승했고, 라면은 10.7% 뛰며 지난해 6월(10.5%) 이후 다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.

온·오프라인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상승하며 체감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. 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부터 3~4%대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. 다만 생활물가 상승률

은 지난해 8월(1.3%)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.

제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올랐다. 빵이 4.8% 상승했고, 라면은 10.7% 뛰며 지난해 6월(10.5%) 이후 다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.

온·오프라인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상승하며 체감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. 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부터 3~4%대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. 다만 생활물가 상승률

은 지난해 8월(1.3%)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.

제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올랐다. 빵이 4.8% 상승했고, 라면은 10.7% 뛰며 지난해 6월(10.5%) 이후 다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.

온·오프라인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상승하며 체감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. 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부터 3~4%대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. 다만 생활물가 상승률

은 지난해 8월(1.3%)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.

제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올랐다. 빵이 4.8% 상승했고, 라면은 10.7% 뛰며 지난해 6월(10.5%) 이후 다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.

온·오프라인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상승하며 체감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. 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부터 3~4%대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. 다만 생활물가 상승률

은 지난해 8월(1.3%)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.

제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올랐다. 빵이 4.8% 상승했고, 라면은 10.7% 뛰며 지난해 6월(10.5%) 이후 다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.

온·오프라인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상승하며 체감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. 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부터 3~4%대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. 다만 생활물가 상승률

은 지난해 8월(1.3%)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.

제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올랐다. 빵이 4.8% 상승했고, 라면은 10.7% 뛰며 지난해 6월(10.5%) 이후 다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.

온·오프라인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상승하며 체감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. 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부터 3~4%대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. 다만 생활물가 상승률

은 지난해 8월(1.3%)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.

제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올랐다. 빵이 4.8% 상승했고, 라면은 10.7% 뛰며 지난해 6월(10.5%) 이후 다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.

온·오프라인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상승하며 체감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. 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부터 3~4%대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. 다만 생활물가 상승률

은 지난해 8월(1.3%)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.

제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올랐다. 빵이 4.8% 상승했고, 라면은 10.7% 뛰며 지난해 6월(10.5%) 이후 다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.

온·오프라인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상승하며 체감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. 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부터 3~4%대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. 다만 생활물가 상승률

은 지난해 8월(1.3%)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.

제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올랐다. 빵이 4.8% 상승했고, 라면은 10.7% 뛰며 지난해 6월(10.5%) 이후 다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.

온·오프라인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상승하며 체감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. 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부터 3~4%대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. 다만 생활물가 상승률

은 지난해 8월(1.3%)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.

제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올랐다. 빵이 4.8% 상승했고, 라면은 10.7% 뛰며 지난해 6월(10.5%) 이후 다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.

온·오프라인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상승하며 체감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. 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부터 3~4%대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. 다만 생활물가 상승률

은 지난해 8월(1.3%)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.

제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올랐다. 빵이 4.8% 상승했고, 라면은 10.7% 뛰며 지난해 6월(10.5%) 이후 다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.

온·오프라인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상승하며 체감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. 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부터 3~4%대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. 다만 생활물가 상승률

은 지난해 8월(1.3%)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.

제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6% 상승했다.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3.9% 올랐다. 빵이 4.8% 상승했고, 라면은 10.7% 뛰며 지난해 6월(10.5%) 이후 다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.